

《임금님과 수다쟁이 달걀부침》 데라무라 데루오 글 | 조신타 그림 | 유문조 옮김 | 돌베개어린이 | 24쪽 | 값 8,000원  
 《일찍 일어난 아침》 라이마 지음 | 심봉희 옮김 | 어린이디자인하우스 | 40쪽 | 값 7,500원

## 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

가족들과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다보면 가끔 닭장 안에 갇혀 어딘가로 실려 가는 닭들을 보게 됩니다. 철장 안에 갇혀서 주둥이만 내민 채 “꼬꼬댁!” 소리를 내는 닭들을 보면 여간 안돼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늘 뻑뻑한 학교생활, 학원생활에 찌들어 숨쉴 틈이 필요한 바쁜 어린이들은 이런 닭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거라 생각합니다.

《임금님과 수다쟁이 달걀부침》에 나오는 임금님은 어린이들처럼 공부 끝난 후 쉬는 시간의 여유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철장 안에 갇혀 있던 닭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꽂 들어앉아 있으면 놀지도 못하겠다”고 말하며 닭장 문을 열어주죠. 병사들은 범인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임금님은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범인 찾기에 애쓰는 신하들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임금님을 놀라게 하는 반전으로 인해 임금님의 행동을 모두 탄로 납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은 이 책 속 임금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닭장 속 닭을 보며 공감대를 느낀 임금님의 마음씨와 임금님이 범인임을 알면서 슬쩍 눈감아 주는 요리사의 여유로운 마음씨 모두 아름답습니다. 공부에 지친 어린이들, 회사일로 피곤한 아빠, 집안일이 많아 고민인 엄마, 가족 모두에게 여유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



## 일찍 눈 뜨는 날, 만화만 보지 말고 주위를 둘러봐

일찍 일어난 날.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에 빠져서 귀한 아침 시간을 허비합니다. 엄마는 “만화 좀 그만 봐!” 라며 다그치지만 무조건 보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시선을 만화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일찍 일어난 아침》은 하얀 돼지 광광의 새벽부터 밤까지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면서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하는 광광네 친척들을 소개합니다. 광광은 오늘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일찍 잠에서 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고 보니 나 혼자만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더군요. 모두 다 쿨쿨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부지런한 할아버지는 운동을 하시고, 버스운전을 하시는 작은아버지는 벌써부터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일찍 잠에서 깬 후 할머니를 찾아가는 광광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모습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광이 무슨 일 때문에 아침부터 서둘러 움직이는지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만의 중화민국아동문학학회에서 2002년 최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된 이 책은 오묘조밀한 인물묘사와 아기자기한 공간 묘사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돼지 가족들의 모습과 생활을 통해 우리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청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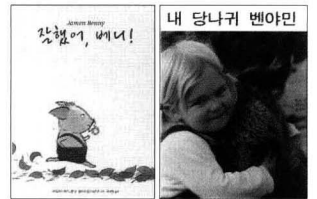




## 이 녀석, 동생이 생겼으면 형답게 굴어야지!

아동심리학에 따르면 두 살 전후의 아이들 내면에도 남모를 질투심과 타인을 향한 미움의 감정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은 부모님들에게 큰 아이가 동생의 존재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충고하는 일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를 단순히 다그칠 수도 없고, 아이의 응석을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잘했어, 베니》의 아기돼지 베니도 시끄럽게 울어대기만 하는 동생에게 고무젓꼭지를 물려주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다 큰 형은 그러는 게 아니야” 충고하지만 베니는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동생의 젓꼭지를 빼앗아 달아나죠. 오히려 이걸 본 동네 아이들은 다 큰 녀석이 젓꼭지나 물고 다닌다며 놀려대는데 말입니다. 이 책은 동생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의 심리를 아기돼지를 통해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보다 큰 아이들 앞에서 입장 바꿔보기를 한 후 다시 집에 돌아오는 베니의 에피소드가 유머러스하게 전개됩니다. 베니가 젓꼭지를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한 듯 보이는 베니 엄마의 행동에는 아이를 향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과정을 유쾌하게 보여주면서 부모님의 역할도 제시합니다. 동생을 맞이하는 우리집 꼬마와 새 자녀의 탄생 앞에서 기뻐하는 부모님들 모두 함께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추천**



《잘했어, 베니!》 바르브루 린드그렌 글 | 울루프 란드스트룀 그림 | 최선경 옮김 | 보림 | 26쪽 | 값 7,500원  
 《내 당나귀 벤야민》 한스 린머글 | 레나르트 오스베르크 사진 | 김경연 옮김 | 달리 | 48쪽 | 값 8,000원

## 삐삐머리 소녀와 당나귀 벤야민의 앙증맞은 우정이야기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도마뱀, 꼬마돼지 등을 앞다투어 사들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물론이고 햄스터, 돼지, 원숭이까지 애완동물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져 갑니다. 이렇게 동물 키우기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동물과 정을 나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 책 속 꼬마소녀 수지와 당나귀는 남다른 우정을 쌓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수지는 아빠와의 산책길에서 애완동물로 보기에 큰 당나귀 벤야민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형제 같은 우애를 쌓아갑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삐삐머리 소녀 수지와 벤야민의 우정이 평화롭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당나귀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씻겨주는 수지의 행동에서 누군가를 보살피려 하는 작은 꼬마의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흑백사진과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 대신 수지가 사는 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시원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죠. 1968년에 출간된 이후 외국 가정의 서가에 오랫동안 꽂혀 있는 장수책이 되어 현재까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덮어버리는 원색의 어린이책과는 달리 오랫동안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책. 우리 아이들 서가에도 그림 같은 책 한 권을 꽂아 주고 순수한 수지 친구와 당나귀 벤야민의 우정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추천**

김청연 기자